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7년 2월 발행 (제 82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프리페이퍼

나팔 HP :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목차:

- ◎권두 메시지 '지상의 상인' 예레미야
- ◎시대를 깨닫는 '심리학과 성경의 가치관' H. F
-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권두 메시지>

'지상의 상인' 예레미야

오늘은 "지상의 상인"라는 제목으로 메시지하고자합니다.

종말에는 "지상의 상인"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8:3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에서는 음녀 바벨론과 함께 '지상의 상인'에 관해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땅"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계시록에는 독특한 단어 나 키워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는 땅이라는 말을보고 싶습니다. 이 책에는 수시로 "땅"에 관한 말씀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말씀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 : 요한 계시록 6:10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다. "거룩하고 진실 주여 언제까지

심판을 행하지 않고,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피의 복수를하시지 않습니까."

땅의 왕 : 계 17 : 2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음행을 행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도이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 계시록에는 지상의 상인 땅에 사는 사람들 땅의 왕 같이, 땅에 관한 말씀이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은 비유의 이해를 말한다>

이 땅의 상인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종말 비유와 수수께끼가 많이 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하신 말씀은 모두 비유임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4:33 ○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 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4:34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성경은 주님이 "예에 의하지 않고 말한 것은 없었다"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 성경은 비유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를 이해하는 마음을 쏘아 여호와의 말씀을 이해하고 싶다고 바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상인의 비유의 의미>

지상의 상인이라는 말의 비유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이 땅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다음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13 ○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여기에서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조상 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하여

지상에서는 여행자, 나그네임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의 이스라엘 조상이며, 신앙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이스라엘 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또한 지상에서 나그네이며 나그네의 발걸음을해야 하는가입니다.

땅에서 나그네이며 나그네하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요? 그것은 나의 이해는 우리의이

땅에 태도를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도? 즉, 이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그 역시 좋은 싫든 곳의 땅에 사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생활하고 세상의 학교에 다니며, 세상의 회사에 다니고 생활을 성립시키는 것 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에이 땅과 접촉하지 않을 수는없고 세상과 무관 생활 할 수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있어도,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로 대하는 세상과 어떤 태도로 대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땅에 사는있어서 바람직한 모습 모범적 인 행보는 다음과 같은 아브라함의 발자취입니다.

히브리서 11:9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 이삭도 야곱도이 땅에서 천막 생활을하고있었습니다. 즉 그들은이 땅에 살고 입고도 여기에 그들의 정착의 숙소와 거주지가 아님을 고백하며 천막에 사는하여 자신들이 땅의 영주권자가 아닌 단지 만일 살고있는 사람에 불과한 것을 고백하고있었습니다. 이것이 여행자, 나그네임을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게 지상의 나그네, 나그네로 견게 뭔가 중요한 의미가있는 것일까 요? 뭔가 경황은 없습니다. 그 행보는 사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에 크게 관계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나그네, 나그네의 발걸음을하는 것이야말로 하늘 도시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11:15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1:16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지상에서 나그네, 나그네의 발걸음을 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도시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반대의 행보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상에서 나그네, 나그네의 발걸음 등없이 세상에 폭 사용한 걸음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할까요? 정말 하늘의 도가 위험 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되도록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말하는 땅의 상인 땅에 사는 사람들 땅의 왕 등이 아브라함과는 대조적 인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이 땅 세상의 정주자이며,이 땅이 세상에 폭 익어 세상의 가치관, 사상에서 걷는 사람들입니다.

요한 계시록을 읽는다면이 땅에 세우는 사람들에 대해 좋은 말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들의 심판과 멸망을 암시하는듯한 묘사가 많은 적혀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6:10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들의 생각은 땅의 것만>

빌서는 이 같은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그들의 생각은 땅의 일 뿐이다 것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3:19 저희의 마음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부분을 살펴 보자. 빌립보서 3 : 18 ~ 20 개소를 읽습니다.

3:18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에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어째서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요? 이런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이유는 우리의 죄있는 육신이 망하고 우리가 고기와 죄에서 해방되는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걷고있는 사람들과 그 멸망되어야 자신의 죄 많은 고기를 다루고, 그것을 십자가에 익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3:19 저희의 마음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동성 결혼을 축복하는 땅에 세운다 목사

여기에서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땅의 그리스도인 도달하는 곳은 천국도 영생도없고, 반대로 멸망이며 지옥이다 바울은 말한다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등의 어리석은 비뚤어진 교리에 달라 붙지 않고이 바울의 경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욕망이며, 그들의 영광은 그들 자신의 수치입니다."

이러한 육체를 다루는 사람들에있어 중요한 것은 또한 그들의 하나님은 자신의 욕망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육적 인 욕망을 충족 것이나, 유명 인사, 영화를 얻게 섬기고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땅의 일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적 인 사람들의 생각은 땅의 일 뿐인 것을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걱정하고있는 것은이 세상에서의 명성, 지위, 경제적이며, 마음은 그런 일만 가득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지상위한 것이다 사람들 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20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있는 것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도 땅에 사는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하늘의 국적이 말씀하고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땅에 사는 사람들로 걸을 때 하늘의 국적을 얻는 것이 어려운 것이 여기에 암시되어있는 것입니다.

<땅과 물이없는 곳>

좀 더 "땅"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있는 것을보고 갑시다. 창세기는 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1:10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부분에 적혀있는대로, 성경으로 물 즉 물이없는 곳을 가리켜 '땅'이라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성경의 비유로 성령의 비유입니다. 다음과 같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래서 땅은 즉 성령이없는 위치를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또한 요한 계시록이 말하는 땅에 사는 사람들 땅의 왕 지상 상인 등은 모두 성령이없는 기독교를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바빌론과 땅의 상인>

시작 부분의 텍스트로 돌아갑시다하지만 계시록은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과 관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8:3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생각을 봅시다. 바빌론은 이전 보았 듯이 미국의 교회를 가리키는 비유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상인의 비유의 의미는 그것은 세상에 붙은 목사, 교사를 바르다 비록입니다.

그들은 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인은 매매가을 할 것이지만, 그것은 매입 것, 즉 속죄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상인은 구속에 관계하는 목사, 신부, 교사 등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 세상으로 성령이없는 목사들이 매우 바빌론 미국 그리스도 교회의 번영과 발전에 주력, 끌려가는 그 것을 위 말씀은 말하고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조항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것, 그것은 바빌론 즉, 미국의 그리스도 교회는 지상의 상인 즉 세상에 붙은 목사와 교사는 매우 받고 있을수 환영된다는 사항입니다.

반대로 말투를 말한다면, 미국 그리스도 교회의 이상한 세상적인 교리에 문제를 느끼지 않고, 성령는 생각되지 않는 이상한 부흥의 영에 의문을 가지게 않는 목사와 교사는 곧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상의 상인입니다. 그들이 미국, 바빌론을 간파 할 수없는 이유는 자신이 땅의 상인이며, 세상에 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바빌론 미국의 기독교 교회에 대해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보아야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회는 사람의 눈에 이상적인 교회 지도자적인 교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이 교회는 지적 교회이며, 심판과 형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이 교회의 교리에 입각하여 그 영을 받아 들일 목사, 교사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려고 하나님의 눈앞에는 가증 지상 상인, 즉 세상에 붙은 목사, 교사 일 뿐이다 없는 것입니다.

바빌론 미국의 기독교 교회가 땅이며 세상적인 것임 :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미국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 트렌드는 분명 세상에 붙은 트렌드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선전하고있는 레프트 비하인드과 환난 전에 휴거 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 자신들이 환난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합하는 세상적이고 제멋대로 인 가르침입니다.

또한 미국의 기독교 음악은 세상의 노래를 커버하고 문신을 넣은 세상적인 가수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이혼도 동성애도 문신도 점점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점점 땅의 것이 받아 들여져 세상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와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또한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큰 문제이며, 큰 문제인데, 그러나 지상의 상인, 즉 세상에 붙은 목사 나 신부, 교사는 문제를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은 프로스트,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모독을 스스로 추진합니다. 그들은 장님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바빌론 미국의 기독교 교회가 땅에 사는 사람들의 동향과 생각과 일치 한 것으로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적인 행보를 진행 바빌론 미국 그리스도 교회는 중 하루 만에 멸망 해 버리는 것에도 알아 봅시다.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8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해야합니다. 이상



성경에서 금지 된 문신을하는 미국 기독교인 음악가

시대를 깨닫는 "심리학과 성경의 가치관"H.F

지금의 시대에서 심리학, 임상 심리학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인생의 고민 문제와 마음의 문제에 대해 심리학에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리학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 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심리학은 무엇일까요.

이제 심리학은 매우 인기있는 학문이되고 있습니다. 책에서 심리학 관련 책이 많이 보입니다 학문적으로도 대학의 심리학과는 인기가 있고, 또한 심리학 강좌 나 상담 강좌도 인기가 있습니다. 심리 테스트도 많은 사람들이 한번 짚은 시도 된 적이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나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소원, 마음의 고민, 일상의 고민도 심리학에 의해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남녀 노소가 심리 상담의 출처를 찾아 심리

카운셀러가 그들에게 조언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심리학에 근거한 상담을 할 곳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많은 교회가 심리학에 근거한 상담을 이용해 또한 교회와는 관계없는 임상 심리 상담 고민이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철학의 형태로 기리시

총전기 시대부터 시작, 심리학은 19 세기 이후 학문으로 성립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큰 영향을 준 것이 정신과 의사이기도하다 프로이드, 융, 아들러의 3 명입니다. 정도 애들러도 프로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사람의 행동에는 심리적 인 뒷받침이 있고, 그것이 "무의식"이라는 무의식의 학설을 주창 꿈을 분석하여 사람의 마음을 찾으려고했습니다.

프로이트는 무신론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교를 환상과

간주 기독교에 적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도 목사의 아들 이었지만 오컬트를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융은 오컬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심리학에 큰 영향을주고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반 성경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가진 심리학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것은 현명한 일일까요 하는가?

마가복음 7:21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7:22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즐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7:23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인간은 자신이 바꿀 수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에 의한 죄의 용서 죄로부터의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문제의 원인은 양육 환경이나 부모 나 친구 관계 등의 외부 요인에서 유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예수 빼고 자기 사랑, 자부심, 자신의 가치, 자아 이미지, 자기 실현 등 자기를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자합니다. 거기에는 죄의 자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 할 죄의 진정한 해방도 없습니다. 심리학은 하나님에 서서 바꾸는 '회개'에서 사람을 멀리합니다.

심리학의 인간적인 지혜로 자기 과거에서 내 면적 인 치료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은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시키고 자신 중에있는 죄 대한 각성 같은 같이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자신은 가치가 있다는 자기 긍정 "존경심" 분을 구하려고합니다. 기독교 세상 지혜가 바탕이 된 심리학의 가치는 부딪치는 것입니다. 그리고이 세상도를 결정 버무려온 모방입니다.

로마서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이다 심리학과 치료와 성경의 가르침은 서로 반대도 없을지만 현재 교회에서 심리학을 바탕 개월 운세리구을하는 곳이 많아 단단히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텍스트 교 운세구 협회가 있습니다. 기독교 카운셀구는 심리학과 성경의 말을 섞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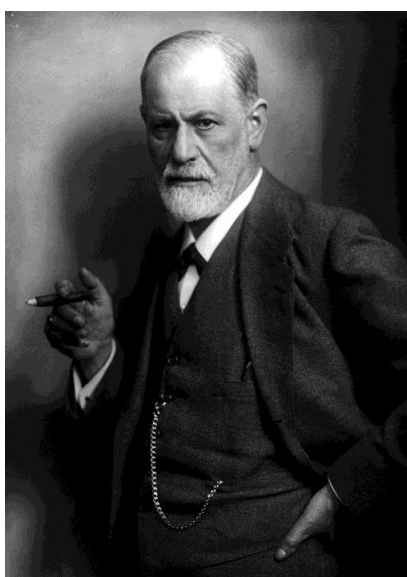
심리학은 잘못 성경을 해석하는 용이라 레 성경은 심리학의 생각과 개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오용되어 있습니다. 진리에서 멀어진 미혹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죄를 회개없이 자기 긍정 '자존심'이라는 거짓 복음.

성도는 성경과 복잡한 마음 물리적인 생각, 마음의 배경에있는 오컬트의 미혹에 경계없이 리마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가지고이 복잡한 미혹 파악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휘장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 긍정적 이나미 없습니다. 성경은 죄에서 구원 유일한 방법 이에스키리토 통해 하나님과 화해 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있는대로 우리는 진정한 상담 오류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심리학이라는 세상의 지혜를 혼합시킴으로써없이 성령에 의해 하나님 자신의 지혜를받는다면 그리스도는 고민 사람들에게 진정한 카운세리구 수는없는 짙어질까. - 이상 -



프로이트